

공부할 때는 잠자고 먹는 것조차 모두 잊어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백양사 야단법석 마지막 법석은 8월 6일 시몽 스님(백양사 주지)의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로 마무리 됐다. 시몽 스님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수행의 진전된 상황을 때에 따라 점검 받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신속하게 배움을 실행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든지 수행을 하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 나서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지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몽 스님의 법문이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다

어떤 일에 뜻을 두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다. 반드시 스승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것처럼 스승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불자라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내 마음을 닦기 위해서 도의 문에 들어선 스승을 찾아야 한다.

진실로 수행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수행법을 지도 받아 수행의 진전된 상황을 때에 따라 점검 받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불자들에게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황벽 스님은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비상한 일이니, 절대 긴장해서 화두를 붙들고 한바탕 결판내야 한다. 한차례 빠 속 깊이 파고드는 강추위를

지나지 않고서는 어찌 매화가 코끝을 스치는 향기를 맡으리"라고 하셨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실제 수행자가 지녀야 할 모습이다.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대 고행과 절대 긴장한 정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

배우는 자에게는 모두가 스승이 된다. 부모형제와 친구는 물론 돌맹이 하나에서도 스승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은 배움을 준다. 특히 작은 가르침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공자의 정훈(庭訓)은 가정교훈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 공자의 제자 진항이 어느 날 공자의 아들 백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선생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받으셨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백이는 "그런 일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혼자 계시 때 때를 지나치려 하자 '시경을 읽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 그래서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더니 '시경을 읽지 않으면 인경과 도리에 통하지 않아 바르게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시경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또 '예경을 읽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라고 답했고, 그 제사야 예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두 마디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법이다. 인격체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는 바로 이런 인격체가 완성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건강해 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야 할 것은 아버지와 배우는 아들 사이의 신뢰이다. 가르치려는 아버지와 배우려는 자식의 모습이 하 눈에 들어온다. 특히 군더더기의 말도 없이 배움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수행에 정진해야

스승을 찾게 된다면 단순히 학습하듯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예전 운문문언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목주 스님을 찾아가 도를 물기로 했다. 목주 스님은 운문 스님을 멀리서 보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운문 스님은 문을 두드리고 목주 스님에게 물었다.

"누구나" "문언입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왔습니다."

목주 스님은 문을 열고 운문 스님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곧바로 문을 걸어 잠갔다. 목주 스님은 운문 스님에게 자기의 일을 밝히러 왔더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운문 스님은 사흘을 연달아 목주 스님을 찾아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했고, 목주 스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여준 뒤 문을 걸어 잠갔다.

목주 스님은 결국 깨닫지 못하는 운문 스님에게 "이 도려찬 같은 놈야"라고 하며, 운문 스님을 밀어 버리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 순간 운문 스님은 목주 스님의 방에 쳐들어가기 위해 문 안으로 발을 들어



시몽 스님은... 1950년에 출생, 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5년 백양사에서 서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8년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1969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제주 법화사 주지 취임 후 30여 년간 제주불교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2008년 9월 18일 백양사 주지로 임명돼 재직 중이다.

어떤 일 이루고자 할 때 혼자서는 무리

선재동자 구법행처럼 스승 찾아야 해

배우는 자에게는 모두가 스승이 된다

부모형제·친구·돌맹이도 가르침 줘

놓자마자 목주 스님이 문을 힘껏 닫는 바람에 정강이가 부러지고 말았다.

스님은 결국 "야"하며 소리를 질렀고, 순간 도를 깨쳤다. 이처럼 극도에 달해서 목숨을 걸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추가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분명히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기와 역량이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지난날 크게 통달한 사람들은 종지를 체득한 뒤, 굳게 문을 잠그고 깊숙이 숨었다. 그리고 맞고 거슬리는 방편을 사용해 일부러 해를 끼치고 노여움을 나타내 꾸짖고 매질하는 등의 백전가지 수단을 부려 학인을 시험코자 했다.

그런 고초를 거치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살짝 밀쳐주고 한 조각 말과 조그마한 방편을 베풀었다. 이는 마치 매우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얻은 듯 감로수를 부어 주는 것이다.

남악 스님은 해보 스님에게 있은지 8년 만에 "설사 한 물건이라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며, 능 스

님은 설봉 스님의 회상에서 15년 동안 좌복을 7개나 떨어뜨렸다. 영운 스님은 30년을 참구했고, 용천 스님은 40년을 스승 밑에 있었으며, 덕산 스님과 임제 스님도 오랜 세월 스승의 문하에서 참구했다.

도는 아무리 많은 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오묘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경술하고 태만한 마음으로 들 어갈 것인가. 영가 스님은 "분골쇄신해도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하니 한 구절에 은연히 백여구절을 뛰어 넘는다"고 했다.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선지식을 참방해 법문을 듣고 참선하는 것은 참된 마음을 찾아볼 양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다. 본래 우리를 마음은 깨끗하고 맑아서 그 자리가 부처님인데 무명에 가려 욕망과 애착심 때문에 참된 성품을 어둡게 만 든다.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이야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것은 본래 청정한 그 마음 자리를 알리고 하는 것이다. 이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다. 마음하니 알듯 하면서도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물건은 더욱 아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길에 서서 입이 쓰도록 정령하게 말씀한 것들이 이 마음 자리를 밝히기 위해서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즐겁고 편안하다.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

이 무엇을 말하는지 낙처(落處)를 안다. 마음을 닦으면 모든 면에서 지혜스럽고 통찰력이 생긴다. 보검을 만드는 데도 쇠를 불에 달구 자꾸 두드려 쇠뿔을 모두 빼내고 쇠의 정수만 남아 아무 잡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두드린다. 그리고 다시 불에 달구 최후에 온도가 차지도 뜨지도 않는 물에 담갔다 건져낼 때 거기에 묘가 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천진하고 깨끗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과 팔만 사천번뇌가 순금에 잡철이 붙듯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마음도 올바르게 하고 그 마음속이 아무 잡된 생각이 없다면 순금이 되고 보검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감성적 가치생활에서 이성적 가치생활로 향상된다. 이성적 가치생활은 이성적인 것과 반이성적인 양 대립이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 동시에 시간 공간적 존재다. 우리는 순수한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삶에는 죽음이 반드시 따라 다닌다.

생사적 인간의 존재는 감성적으로 괴로움을 느낀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주체적 인간에 있어서는 이성 반이성적인 것과 생사적인 존재가 돌이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근본 성격이 절대모순이어서 이것을 자각하는 데는 종교의 진실한 계기가 있다. 인간 자신이 절대모순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말 아니할 수도 없으며,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도 없다.

논리적으로 절대모순, 감성적으로 절대고민, 의지적으로 절대대립이다. 이 셋은 하나이며, 나의 자신이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절대 긴장함을 선(禪)에서는 대의단(大疑團)이라고 한다.

목주 스님이 임제 스님에게 "지금까지 조실스님에게 법을 물었느냐"고 물었을 때, 임제 스님은 "아직 묻지 않았습니.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가 바로 물을 수도 없고 묻지 아니할 수도 없는 대의단에 빠진 상황이다.

대의단은 주관과 객관이 분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혼연히 뭉쳐서 궁극적이고 근원적이면서 절대 주체적인 것이다. 임제 스님은 이런 경지를 "나도 옛날에 깨닫지 못했을 때, 깜깜해서 아득했다. 광음(光陰)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 뱃속은 불이 나고 마음은 바빴다"고 말했다.

임제 스님은 깨달음에 들어 "나의 견처를 가져 말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 얻는 자는 바로 얻어서 오랫동안 수행했다는 세월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과정이 없으면 안된다. 공부할 때는 잠자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려야 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의 리듬을 잊어버려야 한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 자리가 정되고, 부처이다. 마음자리를 그대로 내려놓고, 부처님이 행하던 대로 따라하면 그만이다. **특별취재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중정실사서 : 석운오, 박선혜화) (예경실장 : 석법진)
명예종정 명진 석범은

원로회회장 석흥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무원장 석원정	총회회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덕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중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교육원장 교육원장 석무겸	
총무부장 석능현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부장 석법진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부장 석혜통	부원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부원장 석대명	
재무부장 석도현						부원장 석법오	
행사부장 석명오						1 국장 석대덕	
의전부장 석근홍						2 국장 석해인	

교구총무원
울산총무원장 석현중
김해총무원장 석정해
거제총무원장 석덕은
대구총무원장 석정명
창원총무원장 석법일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정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해안 석혜운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신행)
중앙미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명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입종 안내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근부스님에 한함)
- ※ 범용번호 교육대학 971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으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